

기초학문의 위기는 오고 있는가

# 기초학문의 위기?

남 경 희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1

**필** 자에게 원고 청탁이 오면서 주어진 주제는 '기초학문의 위기'였다. 위기라는 것을 의미있게 논할 수 있기 위한 전제는 위기에 처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과연 기초학문이라는 것, 그에 대한 연구와 관심과 지원이 과연 있는가를 반문하면서, 필자는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순수 또는 기초학문의 연구와 교수를 위한 학과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대학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그 곳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소속되어 교육을 행하고 있음은 험사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기초학문이 실질적이고 주체적

으로 교수·연구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상응하여 사회가 관심을 보이며,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있게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정직하게 말해서 한국에서의 기초학문의 상황은 위기에 처한 정도가 아니라 부재하거나 또는 빈곤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문학, 역사, 철학 등 인간에 관한 기초적인 학문들이나 수학, 이론 물리학, 생물학 등 자연과 세계에 관한 순수 이론 학문들의 수준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외국 이론을 수입, 수용,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이런 기초학들은 그 학문적·현실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정책과 사회적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

한국 대학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현금이 이르러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 도처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확산은 경쟁 시장의 스케일을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제 국제 경쟁력이라는 말은 시중의 일상어가 되어 있다. 경쟁 시장사회의 국제화·보편화는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성이 없는 기초학문에는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대학 개혁과 지원에서도 제1의 원칙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에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실용 학문 영역에 중점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초학문에는 지극히 인색한 지원과 관심만을 보내고 있으니, 연구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이전보다 더한 형편이다. 내가 좋아서 하는 연구이니 구태여 재정적 지원이나 관심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고독한 연구마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구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학기 중에는 강의 부담 때문에, 방학 중에는 입시 출제와 감독 채점 등의 잡무로, 집중되고 연속적인 연구 시간을 가질 수 없다. 더욱더 한심한 것은 이런 악조건을 무릅쓰고 연구 결과를 축적하여도 기초 학문이니 상업성이 없을 것이고, 그 연구 성과의 출판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연구 의욕도 떨어지고 손쉬운 교양서나 입문

서 또는 참고서류나 쓰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받는다.

현재 대학에서는 입시 사무가 차지하는 행정적 비중이 전체의 1/4에서 1/3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대학으로 하여금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 지원에 시간과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이번 학기 본교에서 치른 대학 및 대학원 입시가 9회에 달한다는 말을 듣고는 놀란 적이 있다. 이는 본교만의 사정이 아니라, 거의 모든 주요 대학들에 공통적인 사항일 것이다. 대학 입시는 대학교육의 시작도 아니고 전제에 불과한 것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학 업무에서 입시 업무가 이렇게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본말전도의 상황이며, 더욱이 딱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학 정책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과정과 졸업제도에는 일고의 관심도 보이지 않으면서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편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발도 결국은 한국 사회가 대학 입학시의 산술적 공정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정작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오블관언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엄청난 사교육비를 기꺼이 지불하면서도 막상 대학 등록금에는 지극히 민감하며, 일단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교육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부모이나 학생들의 생각이다. 이런 사실들은 한국에서의 기초학문의 빈곤이 사회적 분위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 3

시장사회에서는 교육과 연구도 일종의 상품이고, 따라서 어느 정도는 시장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요청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학문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원칙 아래 학부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교육 수요에 개방적으로 대처하고, 복수 전공을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문적 폭을 넓히게 할 수 있는 체제이며, 자신의 영역에 울타리를 치고서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안주하는 한국 학문사회의 수구성과 경직성을 지양하게 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에 관한 한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진취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식이 이 취지에 따르지 못하여, 학생들은 취업이 보장되는 또는 그러리라고 예상되는 실용적인 학과에 몰리는 상황이고, 그리하여 기초학문은 대학에서마저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사정은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을 하고 수년간을 강사생활을 하여도 취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니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을 기피한다. 그래서 우수 인력들이 기초학문을 하는 본부 대학원보다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소위 전문대학원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한 사회의 최고 인력이라 할 수 있는 학위 취득자들이 연구에 몰두하기보다는 미숙련 노동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기초학문에서 심각하여 한국에서의 기

초학문의 미래는 차치하고라도, 고도 지식사회와 정보사회를 지향한다는 구호는 명색일 뿐이고, 한국의 현재는 반지식사회라 해도 할 말이 없다.

학생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대학 당국도 기초학 대학원보다는 전문대학원에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대학 당국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 대학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이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에 우선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하지만 한국의 학자들 자신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교육과 연구를 소홀히 하면서 대외 활동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사회를 선도하려 하기보다는 시장적 사회의 추세에 영합하며, 연구실에서 기초적인 연구를 행하기보다는 교육 시장에서 얼굴과 이름과 소피스트적인 지식을 팔고, 외부로부터의 프로젝트를 수동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주력하며 이를 사회봉사라는 미명으로 호도하고 있다. 학자의 사회봉사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교육과 연구 중에서도 연구가 우선적이다. 그 이유는 연구 없이는 교육할 거리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하는 풍토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기초학문은 치열하고 주체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문제의식이 없는 곳에서는 학문과 연구도 없다. 한국의 현 단계 연구 풍토는, 학적 문제들도 그에 대한 이론도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세 추수적이고 식

민지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과과의 구성도 전적으로 외국의 틀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스스로 연구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이론을 수입하여 소개하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 학자는 자신이 가르칠 것을 자신의 연구를 통해 산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전반적으로 한국의 학계는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은 물론 그에 대한 의식마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주체적 문제의식의 결여는 학문적 경쟁의 기피로 나타나고, 이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학문과 전공 분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지역할거주의에 비견할 전공할거주의 또는 전공안배주의의 보호 아래 다수의 학자들이 경쟁없는 권위를 행사하려 한다. 이런 협소하고 폐쇄적인 전공의식은 학회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학회는 유럽, 미국 또는 일본 등 유학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가 같아도 유학국에 따라 학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어떤 학문 영역이나 분야에서는 유학과와 국내파가 갈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정들은 가뜩이나 비좁은 한국의 학문적 공간에서 그리고 많지 않은 학문 연구들 사이에서 통합적 학문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 주제의 수렴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따라서 토론이나 논쟁이 하나의 중심적인 주제를 주축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간헐적이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으니 누적되지 않는다.

물론 소수의 뜻있는 학자들은 나름대로 연구에 진력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한국에서 기초학문의 명맥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의 사회에서 기초학문의 존립을 몇몇 개인들이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고, 사정이 이러하니 기초학문의 연구 성과로서 세계는 물론 아시아에도 내놓을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 5

혹자는 경쟁의 원리는 시장의 원리라 주장하며, 학문의 세계에서는 경쟁의 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논하나, 우리는 이런 논리에 수긍할 수 없다. 경쟁의 논리는 시장의 논리와 구분되어야 한다. 시장은 경쟁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나, 그렇다고 모든 경쟁의 논리가 시장적인 것은 아니다. 시장의 논리는 수요자의 단기적이고 직접적이며 개인들의 특수한 욕구와 필요를 추동 원리로 한다. 그러나 학문적 경쟁의 논리는 지적·윤리적 탁월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지식과 윤리적 가치의 본성에 따라 그 탁월성은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교육은 다수의 대중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시장적 논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구의 영역에서는 보편적 가치와 탁월한 지식이 추구되어야 하며,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자신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리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윤리적 탁월성의 성취 여부는 연구자 상호간의 경쟁과 토론 그리고 비판에 의해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학문의 사회는 자기 검증적, 자기 비판적이어야 하며 상업적 시장보다도 훨씬 더 경쟁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한 사회에서 가장 지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학자사회가 일반 시장보다도 탁월성 성취에서는 더 후진적인 정체성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의 학계는 이제까지 기득권에 안주하며 시장의 논리에서도 경쟁의 논리에서도 제외되는 대접을 받아왔다. 이러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교육과 치열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기보다는 의무의 수행이 없는 특권만을 향유하려 해왔으며, 사회봉사는 미명 아래 교육과 연구를 제쳐 두고 행정 보직, 정치 사회적 활동, 잡문 쓰기, 매스컴 출연 등 학문 외적인 활동에 너무도 많은 열의를 보여왔다. 나아가 연구하는 경우에도 스스로의 문제의식에 따라 연구 주제를 설정하기보다는 연구비를 타며 외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일부 교수들의 이러한 대외 지향성은 활동의 우선순위에 혼란을 일으키고 소외감을 조장하여 기초연구에 몰두하는 학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학문 사회의 경쟁이란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리고 학회나 학회지와 같이 전문적이고 공적인 기구에 의해 그 경쟁의 결과가 엄정히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의 학계에서는 경쟁이 없으니, 경쟁의 논리도 윤리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문적 선진국에서라면 자살행위와 같은 표절행위도 묵인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에서의 기초학문을 포함하여 연구의 현황이 이러한 형편이니 한국 최고의 대학이 세계 800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필연적이다. 얼마전 주요 정책기관은 한국 고등교육과 연구의 현황을 연구하고 21세기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면서, 2000년대 한국 대학교육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 1개 대학을 세계 20위에 진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목표는 한국의 정치 경제적 위상을 생각하면 지극히 가련한 수준의 것이고, 이는 그 목표의 대견함을 말해주기보다는 한국의 현 단계 순수 기초학문의 수준은 물론이거니와 대학과 학문이 참담한 수준에 있음을 응변해 주고 있다.

## 6

기초학문의 열악한 사정은 기초학문이나 다른 학문을 담당하고 있는 학계나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초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기초일 뿐 아니라 한 시대와 사회의 문화, 정신적 삶과 지식, 가치관 정립의 기초이다. 서구의 정신적 문화와 학문적 전통, 나아가 기술 문명의 기초를 제공한 것은 희랍의 철학과 기하학의 정신, 호머와 희랍 비극 시인들이었음을, 그리고 현대 서구의 기술 문명과 산업 발전의 기초와 원리를 제공한 것은 뉴턴과 다윈, 갈릴레이 이래 발전한 서구의 자연과학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적 부상을 유교 민주주의 또는 유교 자본주의 등의 개념을 들어 설명하려 하고, 세계 최고의 교육열 등을 운위하는 것은 공맹에 의해 정립된 유교적 철학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기초학문이 진정으로 인류 문화와 문명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 산업의 발전에서도 인문학과 같은 것이 진정으로 기초적임을 증거해주고 있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기초학문은 현실로부터 멀리 있다거나 비실용적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며, 나아가 기초학문을 순

수학문이라 부르는 데에 동의하지 않고, 상아탑이라는 수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 모든 학문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고뇌의 표현으로서 실용/비실용, 이론/응용 학문의 차이란 단지 현실에 대한 태도의 차이, 시공적 거리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는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근대와 현대의 세계사에서 서양이 주도권을 잡고 동양을 지배하거나 영향을 행사한 것은 한마디로 서양이 기초학문을 중시해서이거나 또는 더 근원적으로 동양과는 달리 순수 이론 학문의 영역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측지술이 희랍에서 기하학으로 발전된 것은 그들의 순수 이론과 학문의 기초에 대한 관심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희랍인들의 기하학적 정신은 서구 학문의 기초가 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동양의 학문관은 서양의 그것과는 달리 실천 지향적이며, 실용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경향은 당연히 현실성과 구체성을 중시하며, 이런 기준을 과도히 벗어나 추상성, 보편성, 순수성을 추구하는 태도에 비판적이었다.

필자의 진단으로는 한국에서의 기초학문의 빈곤 또는 부재의 원인은 현대 한국의 특유한 상황 또는 경쟁 시장사회의 편재화에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보다 근원적이고 멀리 있는 원인은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 전통의 학문관이나 정신적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학문이란 자유와 진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적 엘리트 층에 소속되기 위한 것,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벼슬을 하여 경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과

정이나 학문의 풍토에서 기초학문의 탐구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정신, 도전과 비판 그리고 창의성과 상상력은 억제되는 경향이 편재적이다.

## 7

하지만 이런 역사적 전통은 기초학문의 빈곤이나 부재를 설명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옹호하거나 정당화 해주지는 않는다. 이제 정언적으로 분명한 것은, 기초학문의 발전 없이는 학문, 사상, 윤리적 가치에서 선도적인 국가가 될 수 없음은 물론, 더 이상의 기술 발전, 산업과 경제의 성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외국의 기초 이론이나 기술을 들여와 응용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 발전을 하는 후진적 단계는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전근대적 후진의 상태에서 서구의 기술과 산업을 도입하여 서구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였으나, 이제는 그들과 경쟁하여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1세기 한국의 목표가 세계화이고, 이 목표의 구체적 내용은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선도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서구 선진국의 기초 이론을 수입하여 응용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수준을 벗어나야 한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기초학의 기여가 미미할 수도 있을 것이며, 산업화라는 명분 아래 기초학의 방치가 정당화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학의 방치는 정당화될 수 없음은 물론, 그 목표 성취에도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다니엘 벨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 최강국, 최선진국의 위치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의 대학원 제도를 그런 전망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는 미국의 대학원 제도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바로 그 이유에서 미국은 여전히 선진국의 지위를 누릴 것이라고 자신한다. 현금의 미국의 경제 호황과 경쟁력, 이와 대조적인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경제 불황을 목도하면서 그의 예견이 미국 학자의 다소는 오만한 표현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미국 대학원 제도나 미국의 21세기에 대한 벨의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논리, 즉 한 국가를 선진국이게 하는 가장 핵심적 제도는 대학원 제도, 특히 기초학문을 위한 대학원 제도라는 그의 논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교육은 사회 각 부분의 지도자 교육인데, 한국에서 이 부분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 학교나 학생이나 정부나 사회 모두가 대학원 교육에는 관심을 표하고 있으며, 그 분야가 직업과 관련된 전문대학원뿐이라면, 대학은, 비록 전문가를 양성한다 할지라도, 역시 직업인을 배출하는 직업학교의 수준을 면할 길이 없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기초학문은 한 사회 최고의 지식과 가치를 연구 제시함으로써 정신적·문화적 수준을 선도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그런 점에서 한 사회의 두뇌와 가슴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그 사회의 비전은 없다. ■

---

남경희/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철학연구회 연구이사 및 편집이사, 대교협 대학평가 기준 연구개발위원 및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주체, 의제, 이념』, 『현대 사회의 이념적 기초』(공저) 등이 있고, 서양 고대철학, 정치철학, 존재론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